

"세대를 잇는 농지은행, 농촌에 새 활력"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입력 | 수정 2025.10.23 16:42

농어촌공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고령농·청년농 상생 지원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방치되는 농지가 늘어나면서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고령농이 우량농지를 손쉽게 매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청년농에게 안정적인 영농 기반

을 제공해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매입된 농지를 집단화해 기계화·시설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팜 시설이 설치된 비축농지 임대형 사업을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인 청년농의 도전을 돕는다.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현재 경주 2곳, 상주 2곳 등 총 4곳에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청년농 수요에 맞춰 공사 전체 1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지를 매도한 한 고령 농업인은 “팔고 싶어도 거래가 쉽지 않아 고민이 많았는데 농지은행을 통해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경북 상주에서 비축농지를 임차해 영농을 시작한 청년농은 “농지은행 덕분에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제 땅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서선희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은 “농지은행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세대 간 상생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농의 안정적 영농생활 정착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